

“SRT 전라선 운행·KTX 전라선 증편해야”

전남도의회, 촉구 결의안 채택

국토 균형발전·관광객 편의 증진

전남도의회가 수서발 고속철도(SRT) 전라선 운행과 코레일 고속철도(KTX) 전라선 증편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20일 제372회 제2차 정례회 본회

의에서 민병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이 대표 발의한 ‘수서발 고속철도(SRT) 전라선 운행 및 코레일 고속철도(KTX) 전라선 증편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국토 균형발전과 우리나라 해양상태 관광의 중심축인 전라선의 공동 번영 및 전라선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SRT 전라선 운행과 KTX 전라선을 증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16-2025)에서 70조4000억원을 투자해 수도권과 전국 주요 거점 간을 2시간대로 연결해 원활한 교류 기반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2013년 고속철도 교통량 분산과 경쟁구도를 통한 이용객의 고속철도 서비스 선택권 확대를 위해 SRT 노선 허가와 함께 경부선-호남선 KTX를 전폭 증편하면서 전라선은 왕복 8회 증편하는데 그쳤다. 특히 SRT는 운행조차 하지 않고 있다. 편도 기준으로 하루 평균 경부선 고속철도는 101회, 호남선은 50회 운행되고 있는데 반해 전라선은 KTX만 15회 운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말 KTX 이용률이 호남선은 79%인데 전라선은 106%에 달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국토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뿐 아니라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영호남 남해안관광벨트 조기 구축 사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은 자명하다고 결의안은 지적했다.

민병대 의원은 “전라선 주변에는 여수 해양공원과 엑스포단지·순천만국가정원·전주한옥마을 등 관광명소들이 있어 매년 3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가고 인구가 산업이 집중돼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서도 수서발 고속철도의 전라선 운행과 용산발 코레일 고속철도 전라선은 반드시 증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과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내년 도정 일자리 창출에 올인”

김영록 전남지사 도의회 시정연설 “전남형 기본소득제 공론화”

김영록 전남지사는 20일 내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산업의 혁신성장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표 복지제도로 관심을 받는 전남형 기본소득제도에 내년에 공론화 과정과 연구 용역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이날 내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도의회 본회의의 시정(施政)연설에서 내년 전남 도정의 주요사업 방향을 6대 과제로 제시했다.

6대 과제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 ▲문화관광 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 ▲농어민 소득창출 ▲인구감소에 선제 대응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 확충 ▲도민 제일주의 행정 확대 등이 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김 지사는 “지역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먼저 조선·석유·화학·철강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제도 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섬과 해양을 전남의 대표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고 싶은 섬’의 가치를 높이고 해양레포츠·해양치유·생태 갯벌 등 지역별 특색을 살린 해양관광자원 시설 조성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농어민 소득향상을 위해 친환경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키우고 생산 유통 구조 안정

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며 농수축산업 육성도 내년 예산 투입 주요사업으로 소개했다.

축산업의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해 축산 융·복합 단지를 조성하고 전남형 녹색축산농장과 친환경 축산물 인증도 늘릴 방침이다.

친환경 어업 생산기반 강화와 첨단양식장 모델 구축에 힘쓰고 어촌뉴딜 300 사업을 본격 시행해 낙후한 어촌 지역의 정주여건도 개선한다.

인구감소에 대응해 시군별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을 발굴해 지원하고 젊은 세대 중심의 새로운 인구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특히 전남 대표 복지제도의인 ‘전남형 기본소득제’도 운영 방향을 구체화해, 공론화 과정 운영·연구용역·조례 제정 등 사전 준비에 나선다.

지역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 SOC를 지속해서 확충하기 위해 서남해안 관광도로 광주~고흥 고속도로, 전라선 고속철도, 서울~제주 고속철도 등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새로운 비전을 갖고 주춧돌 하나하나 놓아가는 마음으로 도정에 임하겠다”며 “내년을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시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해보다 6183억원을 증액한 7조 3691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이날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예산안을 심의해 의결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2018년산 공공비축 벼 수매 20일 광주시 남구 대촌농협 주차장에서 '2018년산 공공비축 벼 수매'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전남도의회 ‘여성비하·폭언 도의원’ 윤리특위 회부

피해자 진술 등 거쳐 징계 수위 결정

폭언과 여성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남도 의원이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정식 회부됐다.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은 20일 제37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용호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이 의장은 “앞으로 20일 이내 (특위)가 심사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김 의원은 윤리특위에 정식 회부됐다.

윤리특위는 21일 첫 의원 간담회를 열어 특위 활동 방향 등을 정할 예정이다.

윤리특위는 앞으로 피해자와 주변인 진술, 가해

자 소명 등의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 수단은 본회의의 사과·분회의 경고·의회 출석정지 30일·제명 등 4가지이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전남도 행정사무감사 도 중 질의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남도 공무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이 속해 있는 상임위 여성 위원장에게 폭언을 하고 명패, 탁자를 걷어 차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또 지난 7월 개원이후 해당 여성 위원장에게 수차례 여성비하 발언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파문이 일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일 전남도청 앞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 행사와 희망2019나눔캠페인 출범식을 열었다. 전남모금회는 내년 1월 31일까지 73일간 전개하는 캠페인을 통해 작년 모금 총액인 97억6400만원을 모을 계획이다. 지난해 91.7도까지 오르는 데 그친 사랑의 온도탑 수온주를 다시 100도까지 끌어올린다는 뜻을 담았다. 사랑의 온도탑 수온주는 목표액 1%가 채워질 때마다 1도씩 오른다. 캠페인 첫날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가 성금 7억원, 전남 아너소사이어티 9호 회원인 양광용 인더그루프 회장이 아동의류 500벌을 전

달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21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제막식을 열고 올해 캠페인을 시작한다. 8년 연속 100도 달성에도 도전하는 광주모금회의 목표 모금액은 53억4900만원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배성범 광주지검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이 행사에 참석하고 기아자동차와 삼성전자, 그린알로에,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가 첫 기부 성금 전달식에 참여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www.jnbada.or.kr

TURN SEA FOR HAPPY

2018 전남귀어 스몰엑스포

청년 전남, 황금바다

2018. 11. 24(토) 장흥통합의학컨벤션센터

전남 장흥군 장흥읍 산단로 277 (해당리 648-1)

문의전화 062-220-0581

전라남도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수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